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라는 신앙의 목표를 실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주시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아보기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 시대 최고 기독교 지성인으로 불리는 C.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는 시편 19편을 '시편 가운데 최고의 시편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평가하였고,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 안에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9편은 성경에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을 조화롭게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1절). 시인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공간'인 궁창과 하늘, 가장 먼저 만드신 '시간'인 낮과 밤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궁창은 가장 먼저 창조되었기에, 뒤이어 창조되는 피조물들에 대한 목격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섬세한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공간의 증인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증거할 때, 시간의 증인들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2절)합니다. 낮과 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모든 섭리를 어제가 오늘에게, 오늘이 내일에게 전하여 나타냄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포를 알아듣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도 어둡다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3절). 죄악 이후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연이 선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지 못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자연세계의 외침이 여전히 세상 끝까지 선포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4절).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고백에서 시작된 지식은,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서 하늘과 궁창이 외치고, 낮과 밤이 나타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고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에서 어제와 오늘로 이어져 온 각자의 시간을 뒤돌아보십시오. 그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과 시간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듣고 보는 지점에서 성도의 삶은 시작됩니다. ✎



 텍스트와 콘텍스트

입에서 시작하는 행복



김성진 담임목사

들어가는 말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고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의도적으로 돈과 말(言)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인간의 행복이 입에서 시작되고, 입에서 마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라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개인의 경건이 결정되는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서 개인의 행복이 정해집니다.

입에서 시작하는 행복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행복)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전 5:18-19).

한글 성경은 ‘먹고 마시다’와 ‘누리다’라고 달리 번역하였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아칼’이라는 같은 단어로써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누리게 하시며’는 ‘먹게 하시며’입니다.

전도자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돈을 주셨으며, 한 사람의 행복은 일상의 먹고 사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진정한 행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바라봄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일용한 양식을 먹으면서 ‘누리는 행복’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눈은 처음에 볼 때만 감동합니다.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에 가면 처음에는 “와!” 합니다. 그런데 조금 살다 보면 그 집도 좁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살다 보면 불평하는 것이 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양을 눈으로써가 아니라 입으로써 측량하게 하십니다.

입에 음식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누구나 배부름을 느낍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느끼는 순간부터 음식을 더 이상 입에 넣지 않습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한 양식입니다. 오늘 하루 식사를 하고 배부름 느끼셨으면 여러분은 오늘의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 앞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합니다.

(*성경구절 가운데 기록된 괄호 안의 문구는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한 것임)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 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전 6:1-9)

불행을 만드는 재물

그러면서 돈 때문에 불행한 두 경우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하나를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리’입니다.

“어떤 사람은...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먹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것도 헛되어 악한(불행을 만드는) 병이로다”(6:2). 이 사람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부요를 보았으나 그의 입은 그것을 먹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경건이 시작되고
입으로 들어가는 ‘돈’에서 행복이 결정돼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이유,
우리로 먹고 살게 하시기 위함
많은 돈을 갖고 바라보지만 말고
먹고 누리며 행복 느껴야

불행한 사람은
다 받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다 갖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일용할 양식에 ‘배’ 부르듯
감사로 가득찬 ‘마음’이어야”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의 손에서 떠나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가졌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그러한 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불행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특수한 경우라면 두 번째 경우는 돈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람이 비록 백 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 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나은 낫다 하나니”(6:3).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자의 세 가지 증거는 부요와 장수, 자손입니다. 두 번째의 사람은 많은 재물과 자손과 장수를 받았으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만족하지 못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처럼 주신 것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문힐 곳도 없이 불행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훨씬 낫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6:4-5).

그러면서 첫 번째 경우이건 두 번째 경우이건 재물로 인한 불행이 올 때, 전도자는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

아 보아라(깊이 생각해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7:14).

하나님께서 재물로 인한 형통함과 곤고함을 우리 인생 가운데 번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갈 재물을 주셨다면 그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기뻐하여야 합니다. 만일 일용한 양식이 없고, 오늘 살아갈 재물이 없다면 자기의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불행이라면 그 때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곤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바꿔야 합니다.

채울 수 없는 마음

이어서 전도자는 돈과 관련해서 경건의 마음이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마음, 영혼)은 채울 수 없느니라”(6:7). 우리가 땅에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수고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먹고 사는 것에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모든 과학과 기술의 근본적 지향점도 결국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먹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들어가면 배는 부른데,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내 입으로 넣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딱 하루 분량의 만나만 주시고 쌓아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루 분량의 만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필요한 양만큼 공급하고 계시다고 하는 약속의 표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한’ 양식, 즉 하루 쓸 만큼의 양식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쟁여놓게 일 년 것을 달라고, 저축하게 십 년 것을 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일용한 양식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배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일용한 양식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맺음말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돈’이라는 거대한 주제도 궁극적으로 내가 돈 때문에 행복할 것인가, 불행한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음식’에서 결정됩니다.

오늘보다 아름다운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용한 양식이라면 그것에 만족하고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음식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하루는 행복하기를 결단하고 시작된 것입니다. ☆

청년부섬김조직

하나님의 세워가심에 동참하다



손하람 목양3국, 청년부 디렉터
anointedhson@gmail.com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사61:2~4).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통해 회복과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날이 오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재가 화관이 되어 삶이 새로워진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 그들을 '의의 나무'라 일컬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에서 '세우다'(바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역사의 질서를 세우실 때 쓰이는 표현으로, 재건과 창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홀로 이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취해 가신다고 말합니다.

올해 청년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세워가심에 동참하려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 내 마음만을 묵상하게 되어, 하나님의 세워가심 대신 자신의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청년 공동체가 '의의 나무'를 회복함으로 '의의 숲'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땅 가운데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



[목양 1국]
김진산 목사



[목양 2국]
최영광 목사



[목양 3국]
손하람 목사



[목양 4국]
김현희 전도사



[새가족, 찬양]
김다영 전도사

간사
찬양팀
이혜연A 간사

[목양 1국]

[목양 2국]

[목양 3국]

[목양 4국]

[새가족국]

목양국장
여요한

목양팀장
문현우, 성윤하, 변윤하
나예선, 박은향, 최주은

기능팀장
김연지, 이한영

목양국장
이성은

목양팀장
이혜련, 이은솔, 최요한

기능팀장
박준서, 윤혜원

목양국장
심기쁨

목양팀장
심기쁨, 김선희, 장예은

기능팀장
윤지혜, 정다희, 권오영

목양국장
한수연

기능팀장
이혜연B

팀장
김예진

회계
김정은

조장
김기쁨, 이동준, 정이석

2025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

Rebuild

: 무너진 곳에
희망을

날짜 2월9일(주일)~11일(화) 장소 광림수도원 강사 손하람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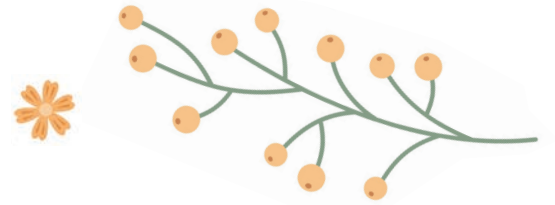
청년부 목양1국 수련회

주제 **광야를 걷다**

일시 2월21일(금) 오전10시~22일(토) 오후4시
장소 THE심수양관, 청소년부실(열린빌딩1층)
강사 김진산 목사

선교&복지사역위원회Q&A/명성인 목사님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실천하다



Q. 선교&복지사역위원회 담당교역자로 섬기게 된 소회 부탁드립니다

A. 선교와 복지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실천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위원회를 섬기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큰 은혜이자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오직 진리와 성령을 의지하여, 열린교회에게 맡겨진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Q. 선교&복지사역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선교&복지사역위원회의 담당 사역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① 선교사역: 국외 선교사 파송 및 후원, 단기선교, 신학교 사역, 북한선교, 선교지 개발 및 협력 사역 등
- ② 전도사역: 농어촌전도, 미자립교회 후원, 지역전도, 병원전도, 직장인전도, 고시원전도, 교정선교 등
- ③ 복지사역: 교회와 지역 내 어려운 이웃 돕기, 노약자 및 장애인 지원, 긴급구호 활동, 교회 내 성도들의 삶을 돕는 다양한 사회복지 사역

Q. 선교&복지사역위원회의 조직을 소개해 주세요.

A. 본 위원회는 위원장에 금성철 장로님, 위원에 김춘경 장로님, 담당교역자에 명성인 목사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선교와 복지 사역의 섬김 분야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6개의 부서로 세분화하였습니다(괄호 안은 부장과 교역자, 팀장).

- ① 국내전도부(김영규 집사/권경철 목사/김영규 집사: 국내전도팀, 남기용 집사:교회자립팀)

② 지역전도부(박미경 권사/양승희 전도사등/안경록 권사:지역전도팀, 장경숙 권사:교정전도팀)

③ 해외선교부(이호진 집사/김하림 목사/이호진 집사: 해외선교팀, 임승빈 집사:선교지원팀, 최복진 집사:북한선교팀, 김진범 집사:의료선교팀)

④ CRTS부(김춘경 장로/명성인 목사등/조석봉 집사:RTS 1팀, 유영섭 집사:RTS 2팀, 김영호 집사:통역팀)

⑤ 복지부(오기용 집사/곽혜정 전도사/오기용 집사:장학팀, 지수영 집사:장애인팀, 강민옥 권사:구제팀, 이계상 집사:이웃사랑팀)

⑥ 외국인부(유동식 집사/이찬 전도사)

Q. 선교&복지사역위원회는 기존의 '5센터 2위원회' 조직에서의 선교센터와 복지위원회를 통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언뜻 보면 선교와 복지는 다른 카테고리라 가야 할 것 같은데 둘을 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선교와 복지는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하나의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복지는 삶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두 영역을 통합함으로써 보다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열린교회 선교사역과 관련해서 기존의 섬김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 과거의 선교는 주로 선교사를 해외로 보내서 현지에서 섬기게 하는 '파송 중심'의 선교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런데 세계의 글로벌화, 소셜 미디어의 발달, 인구감소 등으로 각 나라마다 다문화화되어가는 등 복합적인 시대의 변화 가운데에서 기존의 선교방향에 대한 전환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를 현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역자를 훈련시키고 현지 교회를 세워 자립을 돕는 '협력 중심'의 선교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온라인 선교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부분으로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열린교회는 이러한 선교적 변화를 반영하여 현지 중심의 선교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Q. 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코로나로 인해서 이웃 간의 담이 더 높아졌고, 선교사역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축소되었습니다. 선교&복지사역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4월 말에 '열린 선교대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열린교회의 지난 선교사역을 돌아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선교 패러다임에 맞추어 새로운 선교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선교와 복지 사역은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교인이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할 때,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선교와 전도, 복지의 강을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교회 소식



교회학교와 함께하는 온세대아침예배

일시: 2월 1일(토) 오전 7시
장소: 예배실(본관3층)
(*5시30분 새벽기도회 정상 진행)

제1기 평신도 상담학교

일시: 2월 2일(주일)~3월 9일(주일) 오후 6시~9시
장소: 열린빌딩 6층
대상: 구역장, 순장 및 평신도 상담사역에 관심 있는 분.
주제 및 강사
(1,2주 차) 마음을 이해하는 길/ 마음이 만들어지는길 (유성경 교수)
(3주 차) 마음을 나누는 길(안경승 교수)
(4주 차) 마음이 아픈 사람과 함께 가는 길(최은영 교수)
(5주 차) 마음을 만나는 구역인도법 배우기(김은영 교수)
문의: 열린심리상담연구소 (010-8282-4204)

결혼예비학교 '토브'

일시: 2월 2일(주일)~23일(주일) 오후 6~8시
장소: 새가족실(별관2층)
대상: 예비 부부 및 결혼 1년 차 부부
주제 및 강사
(1주 차) 성경적 결혼관 (김성진 담임목사)
(2주 차) 재정의 첫걸음 (최수열 삼도회계법인 회계사)
(3,4주 차) 부부의 성/다름의 축복 (이병준 심리상담학 박사)
문의: 윤희진 집사

2025 국내아웃리치 교회 선정 안내

아웃리치 일정: 6월 6일(금)~ 8일(주일)
추천방법: 1층과 3층 예배실 앞에 비치된 추천서를 실명으로 작성 후, 수거함에 제출(실명으로 제출된 추천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 후 교구당 2개 교회 선정 예정)
문의: 김영규 집사

2월 주요사역

1일(토) 온세대아침예배
2일(주일)~23일(주일) 결혼예비학교 '토브'
2일(주일)~3월9일(주일) 평신도상담학교
7일(금)~8일(토) 청년부 리더수련회
8일(토) 상반기 강단기도 헌신자모임
9일(주일)~11일(화) 청소년부 겨울수련회 및 회심집회
9, 16일(주일) 장학현금
21일(금)~22일(토) 청년부복양1국 수련회
22일(토) 예배음악세미나

새가족

▶▶ 장년 ▶▶ 청년

이보섭(66)	장혜연(84)	우재은(96)
홍승표(91)	강한나(83)	임연재(03)
안선희(70)	이동준(78)	김광민(97)
임문호(62)	김주호(94)	
이선희(71)	이청아(97)	

추천도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신국원/복있는사람



꿈을 잃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되찾아야 하지요. 저는 성경이 그것을 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분명 그랬습니다. 성경은 신앙의 선조들이 꿈과 환상을 따라 보이지 않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듣는 이들도 꿈을 꾸게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들의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어떻게 우리의 비전텔링(visiontelling)이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왜 지금 우리 눈에 그 길이 밝히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같은 본향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세상만 꿈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신기루에 흘러 있는 것은 아닐까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에 마음이 떨립니다(잠 29:18).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비전(vision)은 스토리(story)에서 나오니까요. 선조들의 발걸음을 추적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그들이 보았던 비전으로 열리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출판사서평중)

새해말씀사경회 취재

'큰 질문' '큰 그림'을 보다



'큰 질문(Big Question)', '큰 그림(Big Picture)'을 보다

2025년, 우리가 밭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상황은 혼돈의 밤바다로 보입니다. 어쩌면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뿐, 인간 실존 자체가 늘 그렇게 큰 해일 앞에 서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이런 무거움 속에서 2025년 새해 문을 열며, 열린교회 성도들은 1월 14일부터 사흘간 '큰 질문'과 '큰 그림'을 마주하였습니다.

종종 소소한 것들이 인간에게 위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살 수 없는 게 인간인 듯합니다. 인간 안에 들어있는 거대한 심연은 본질적인 근원을 묻는 '큰 질문', 이에 대한 답인 '큰 그림'을 보지 않는 한 만족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해의 '예수!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경회 주제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큰 질문'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펼쳐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요동치는 밤바다 너머 등대를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혜-창조의 설계도, 도구, 질서

사경회 첫날 주제는 '지혜!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되다'(잠 8:22-30)입니다. 김성진 담임목사님은 마치 노련한 건축가가 멋진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설명하듯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창조 전, 창조 시, 창조 후의 하나님과 지혜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전에 가장 먼저 지혜를 만드셨습니다. 이 지혜가 이후 모든 존재하는 것의 '설계도'가 됩니다. 창조 시에

는 창조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창조 후에는 이 지혜가 '창조질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 지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인간 생존과 연결된 근원이라는 것이 자연스런 결론입니다.

둘째 날은 '지혜! 성도의 삶의 원리가 되다'(잠3:11-18)입니다. 먼저 몸의 지체들의 지혜입니다. 귀, 눈, 입, 발 등 창조질서에 합당한 지체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바른 것을 보고 듣고, 이것을 통해 모아진 정보는 언어로 드러나게 되고, 언어는 발(행동)을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삶의 모든 관계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을 포함한 사람과의 관계, 이 시대와 나와

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타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삶이 질서있게 세워집니다. 반대로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삶이 무질서해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선 지혜는 사랑과 배려로 나타나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부부, 자녀, 부모 등은 우리가 자칫 소홀히 하기 쉬운 관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십니다.

끝으로 시대와의 관계에서의 지혜는 법에 대한 존중과 보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공간 안에서 우리는 파괴자가 아닌 회복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 개의 관계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극단적인 자유, 나 자신만의 자유만을 외치는 해체의 시대 속에서 '관계' 질서의 회복이 얼마나 절박한지 말씀을 들으며 느낍니다.

셋째 날은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다'(고전 1:18-25)입니다. 참 지혜이신 예수님은 죄로 망가진 세상의 회복자, 재창조자로 오셨습니다. 타락 이후 이 세상은 자연질서와 인간관계의 파괴로 치참해졌기에 회복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정수이자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폐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도, 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이 되게 하셨습니다. 혼돈, 분열, 미움, 다툼 등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사경회 주제가인 '예수의 길'을 함께 부르고, 이후 들려지는 말씀을 들으며 제 마음의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 안에 강력하게 부조(浮彫)된 '안개'에 대한 기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혼돈 속에 있음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분을 만나니 '자욱한 안개'가 걷히고 사물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하...그랬었구나! 예수님이 창조질서로 이 땅에 거하시기에 혼돈 가운데 있던 내 인생이 이분을 만나자 질서가 시작된 거였구나!'

우리는, 거대담론을 거부하며 진리는 없다고 외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혼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큰 질문에 답하는 큰 그림이라는 결론을 재확인하는 가슴 벅찬 사경회였습니다. ☆

취재: 신미숙 기자 pacific1009@naver.com

교리반 후기

저를 위해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엄정숙 장년4교구
ijj0707@gmail.com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 글을 쓰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리반을 공부하고 싶었으나 여건이 되지 않았기에 '그래, 이 나이(71세)까지 주신 은혜로 만족하게 생각하자'며 나를 위로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우리 교리반 공부 해야지?"라고 했을 때, 내색은 하지 못하고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교리반, 언제 시작하지?' 기다리며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교리반은 처음의 설렘과 기대와는 달리 어려웠어요. 1강 계시, 2강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 배우는 시간에는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 신학적 용어, 복음의 뜻이 섬세하게 들어간 표현들이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긴장하여 읽고 또 읽었어요. 예수와 복음을 하며 잘 마칠 수 있기를 기도했어요. 다행히도 과제를 정리하며 부족한 대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3강 이후의 공부를 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과 우리를 통하신 계획, 준비하심, 이루실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는 것임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핵심이었지요.

준비하신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 함께 가자고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갔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공부한 것들을 점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부담되었어요. 다시 책을 펼쳤고 미리 받은 예상 문제들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있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는 저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았어요. 내가 아는 것 말고, 준비되었냐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막연하게 멀리 있는 곳, 갈 수 있는 곳으로 알았지요. 제가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의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나의 아들,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자책감과 후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구역에 가서 나누며 위로를 받았어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야 할 아들 생각에 힘들었어요. 남편을 탓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전도사님이 교리반 소감문을 작성해 보라고 하셨어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젊은 분이 써야지 생각했는데 왜 내가 쓴다고 대답했지? 그래, 배운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쓰면 되지. 정직하게 쓰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책을 다시 펼쳐 되새기며 공부했어요. 은혜롭게 잘 읽어가며 공부해 갔어요. 그러나 여기서 또 걸리고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았다.' 조용히 생각하였습니다. 제게 필요한 시간, 돌아봐야 할 시간이었어요. 나이는 71세인데 어린 아이 같은 나, 그러하기

에 잘 넘어지고 물가에 놓은 아이 같은 나, 은혜는 잘 받는데 쉽게 넘어지는 나. 자라가야 하기에 고난으로, 때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훈련하셨는데 그럴 때 고난이 싫어서 동굴에도 숨었고 교회 안 다니고 싶었던 시간도 생각나네요.

가정에 어려움도 있었고 나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셨기에 열린교회로 부르셨던 은혜와 눈물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회복과 함께 평안을 누리고 두려움을 지나 기쁨의 시간. 다시 일어나 가자 하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누리고 산 내 모습. 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의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소망과 위로를 받으며, 은혜를 누립니다. 좁지만 넓어진 나의 길을 펼치시며 아직 오지 않은 나라, 도래할 나라를 준비하며 말씀으로 고난의 순간에 아버지 품에 안기겠습니다. 한걸음씩 따라가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주님 부탁하신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한 몸 안의 한 지체로 건강하게 세우며,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함께 그리고 나란히 가기 원합니다. 지복직관의 그 날까지.

여기까지가 교리반 공부입니다. 저를 위해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함께 공부한 지체들께 감사하며 귀한 시간 내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

강도사인허 후기

공부하고 실천하며 인격이 되기까지



이두호 청소년부1국
dhl1330@gmail.com

우리 교단은 3년의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기 전 강도사 고시를 치러야 한다. 강도사 고시를 통해 이 사람이 도(말씀)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를 평가한다. 논문, 주해, 설교, 교리, 교회사, 헌법, 면접이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논문은 매년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해 30장 분량의 소논문을 작성해야 하고, 주해는 주어진 본문을 분석하고 풀이해야 하며, 설교도 주어진 본문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작성해야 한다. 이 논문과 주해, 설교는 3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접수하면 6월에 있는 강도사 고시를 치를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는 조일권 전도사, 김민성 전도사와 함께 강도사 고시를 준비할 수 있었다. 웬만한 규모 있는 교회가 아니면, 강도사 고시에 응시하는 인원이 교회당 한 명 있을까 정도인데, 우리 교회는 나를 포함하여 3명이 응시하였다.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동료가 있어 하나님께 감사했다. 서로 독려하고 장려하여 강도사 고시에 필요한 논문, 주해, 설교를 완성할 수 있었고, 기간 안에 접수할 수 있었다.

나머지 교리, 교회사, 헌법은 사지선다 시험으로 일정한 점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다. 이 중에 어느 한 과목

이라도 과락 한다면, 다음 해에 과락한 과목만 다시 응시해야 한다. 그러나 교역자들 사이에서 강도사 고시에 불합격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있다. 교역자들 사이에 흔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강도사 고시에 과락하면 소명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그렇다 보니 강도사 고시를 치르는 전도사들에게 이 고시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강도사 고시도 미리 준비해 보려고 했지만, 바쁜 교회 사역으로 시험 보기 3주 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서로의 진도를 물어보며 은근히 서로를 압박했고, 시험 때에는 함께 기숙사에서 지내며 마지막까지 같이 공부할 수 있었다.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오전에 교리, 교회사, 헌법 시험을 보고 오후에는 면접을 봄으로 강도사 고시를 마쳤다. 그리고 결과는 다음날 오후 2시에 발표되었다. 우리 셋은 함께 점심을 먹고 카페에서 2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합격과 불합격, 생사를 오고 가는 시간이었다. 여기서 한 명이라도 불합격한다면, 합격한 나머지 사람도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무조건 세 명이 다 합격해야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2시가 되었을 때, 감사하게도 우리 세 명의 이름이 합격 명단에 있었다. 우리 셋은 패재를 부르며, 그동안 함께 노력하고 준비한 서로를 축하해주었다. 그리고 합격하였으니 강도사 고시 합격을 당연히 여기며 허세를 부리기도 하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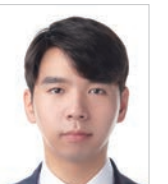
이렇게 일생에 한 번 있는 강도사 고시를 두 명의 동역자와 함께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사'가 아닌 '강도사'가 되었고, 도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치기에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총회에서 치르는 고시는 합격하여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스스로를 평가할 때는 갈 길이 멀다. 이 길은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며, 실천한 것이 인격이 되어야 한다.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하지만, 배운 것을 실천하고 그 실천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는 과정이 남았다. 그래서 강도사가 되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배움에 정진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분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 전해 드립니다. ☆

강도사인허 후기

한 영혼을 목양하는 일이 곧 세상을 구하는 일



김민성 청소년부2국·교회학교 부디렉터
immanuel0912@naver.com

제2차세계대전의 참상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스카 윈들러(Oskar Schindler)라고 하는 실존 인물을 중심으로 제작된 '윈들러 리스트'입니다.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윈들러는 독일 사업가로서 기회주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공장을 설립해 유대인 노동자를 저렴하게 고용하여 수익을 올리며 자기 이윤에 몰두한 모습은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윈들러는 나치의 잔혹한 유대인 학살을 목격한 후, 점차 인간적인 책임감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기원전 5세기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한 것에 비추어 본다면, 자신의 삶을 반추하기 시작한 윈들러의 삶에는 조금씩 가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자본을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나치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어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유대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이미 잡혀간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윈들러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강제 수용소로 보내질 위기에 처한 유대인 노동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고, 윈들러는 이들을 자신의 공장에 고용하여 안전을 보장하려 했습니다. 독일이 점점 패배할 조짐을 보이던 시점에 그는 공장을 폴란드에서 체코슬로바키아로 이전하여, 유대인 노동자들이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자 부족이 심각했던 당시 전쟁 상황 속에서 유대인 노동자들을 위해 자신의 돈으로 식량과 의료 물품, 생필품을 구입해 제공함으로써 생존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서 흔들리는 전범으로 체포될 위험을 느끼고 공장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은 유대인 노동자들은 떠나는 그를 위해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반지의 안쪽에는 탈무드의 격언 하나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저는 이제야 강도사 인허를 받은 젊은 목회자입니다. 젊어서인지 많은 계획과 포부가 제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꿈꿔야 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기 이전에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한영혼 한영혼을 목양하는 일이 곧 세상을 구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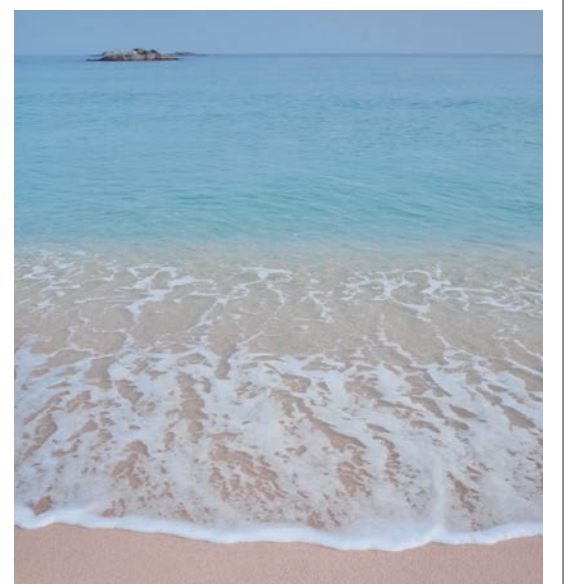
예수님께서도 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일을 감격스럽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비록 치욕적인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결코 그분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가치가 아흔아홉 마리 양의 가치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윈들러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부를 바쳤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삶을 모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살리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그분의 삶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닌, 한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글을 맺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한가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길을 잃

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 하리라" (마18:12-13). ☆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4교구)



높이 계신 여호와와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와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시편 93편 4-5절

새해말씀사경회 후기

2025년을 힘차게 살아갈 힘을 얻다



박나영 장년7교구
gingery@naver.com

하나는 주제로 말씀을 깊게 사흘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주제도 '예수! 하나님의 지혜'라니요. '지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고 싶고, 배우고 싶어하는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온갖 귀한 것을 싣고 길을 떠난 시바 여왕의 심경은 이해가 가고도 남는 것이지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새해에 하나님의 지혜를 조금이나마 더 이해하고 나의 삶에 녹여내길 바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34개월 아이를 데리고 평일 사흘간의 사경회 일정을 소화하기엔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생각 말고 그냥 가자란 마음으로 아이를 카시트에 앉히고 핸들을 잡고 교회를 가던 첫 날이었습니다. 유아체육을 한 날이라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던지 아이는 "엄마, 오늘은 너무 피곤해. 집에 가요"라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살살 달려면서 유아부사경회에 보내고 남편과 함께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되다' 시간에는 지혜의 신적 기원을 찾아 떠납니다. 잠언에는 '나'로 지칭되는 지혜가 우리에게 말을 거는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잠언8:22-30)에서 자신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지혜를 '창조의 설계도'로 삼아 방향을 잡으시고,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셨으며, '창조의 질서'가 되게 하십니다. 설교 중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라 할 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그 시간을 살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삶의 행복이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십니다.

둘째 날 '지혜, 성도의 삶의 원리가 되다' 시간에는 관계의 측면에서 지혜를 살펴봅니다. 수많은 관계 중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에서 스스로를 엄히 돌아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을 바라보며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임을 다시금 느낍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세상의 지혜와는 달리 선택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지혜롭게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선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날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다'는 이번 사경회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태초 전부터 십자가까지 흘러온 지혜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십자가로 모든 지혜를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예수님은 회복 사역을 하셨고, 오늘날 나에게도 회복자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약해지고 지칠 때마다 십자가로 가기보다는 세상이 가공해서 들려주는 온갖 지식과 지혜에 귀가 솔깃했던 스스로를 돌아보며 가슴이 뜨끔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첫날 울면서 교회를 갔던 아이는 사경회 끝나고 데리러 갈 때마다 한 손에는 뽕튀기를 들고 한 손에는 재미있는 만들거리를 들고 깔깔 웃으면서 뛰어나왔습니다. 12시에 잠이 드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그게 뭐 대수이겠습니까. 하나님께 2025년을 힘차게 살 힘을 얻었으니까요. ☆

온가족함께교회오는날 후기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



민인숙 장년2교구
may22lis@naver.com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어김없이 섬김기도 후에 지역전도부 목사님의 기도로 무장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오늘 당신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되뇌입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가볍고 전도하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열린신문과 함께 짧은 외침 속에 수요 일마다 마주치는 낯익은 얼굴들과 섞여 오가는 군중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거의 8할은 넘은 듯싶었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빌립보서2:13) 말씀을 위안 삼으며 늘 하듯이 열린신문과 물티슈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0차선 도로의 횡단보도라 많은 사람의 오고 감에 신호 대기 시에 짧은 대화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충분한 상황이 감사드리며, 그날도 스치는 많은 사람 속에 하나님은 이 글의 주인공인 A 성도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횡단보도를 다 건너 마치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아 헤매는(비유가 아니라 진짜 제 눈에 갈 길 몰라 헤매는 모습으로 보였고 나중에 직접 들은 결과 놀랍게도 사실이었습니

다) 한 분이 보여 권사님과 대화 도중에 쓴살같이 뛰어가서 "안녕하세요. 열린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열린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셔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A 성도님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카페 전도팀의 배려와 그날따라 카페 정원에서선 전소녀 집사님의 합창단 공연으로 아름다운 찬양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여서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 성도님은 홀로 매번 주일예배에 출석하여 설교 말씀을 붙잡으셨습니다. 함께 전도한 권사님과의 교제 속에 드디어 '온가족함께교회오는날', 12월 22일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지금은 수요섬김기도와 새가족반 교육도 열심히 참석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감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열린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이 커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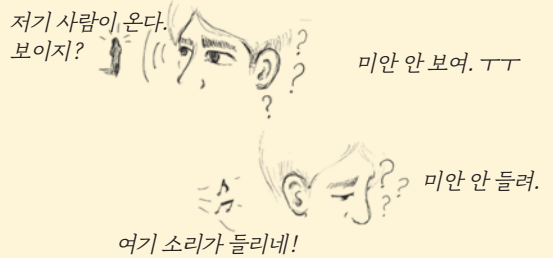
2023년과 2024년 새생명전도학교에서 목사님께서 '전도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여, 누구도 해결할 수 없

곰곰이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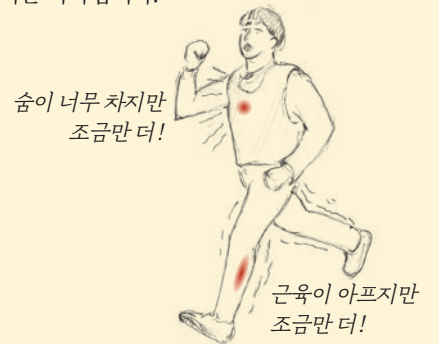
지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넘어서!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눈이 볼 때 귀가 못 보고, 귀가 들을 때 눈이 못 듣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입니다. 달릴 때마다 심장과 다리가 같이 움직입니다. 심장과 다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손이 가시에 찢릴 때 얼굴에 웃음이 사라집니다. 손과 얼굴이 한 지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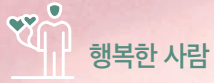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은 지체입니다. 다르면서도 하나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를 뛰어넘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고린도전서12:12)

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열린교회 주변의 많은 직장인과 이웃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야고보서1:6) 말씀을 묵상하며,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담임목사님의 에베소서 설교 말씀 "아는 만큼 살아야 한다. 아는 복음과 사는 복음의 균형이 있어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진정한 복음의 사람의 인생이다"를 기억하며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자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보잘것없는 적은 능력이지만 날마다 게으르지 않게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



“그 교회에서 꼭 예수님을 만나야 네가 산다”

정진우 장년7교구
faplus119@naver.com

어린 시절, 신앙심이 깊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를 불의의 사고로 잃었고,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할머니 손에 자라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친손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시고자 하였고, 기도와 신앙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사춘기와 청년기 동안 큰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장소로 이사 다니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듯이 저도 매번 근처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 갈 때 조카 롯을 데려간 것처럼, 저 또한 할머니의 끊임없는 기도와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녔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교회 마당만 밟는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십자가를 떠날 때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믿음이 없던 처남이 불의의 사고로 몸이 불편해졌습니다. 그에게 교회에 다녀보지 않겠냐고 권유했더니, 순순히 교회에 나가겠다고 하여 그 즉시 처남이 사는 시골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 서울로 올라온 처남을 병원에 데려다 줄 일이 생겼습니다. 운전 중 룸미러로 처남을 보며 “교회 다니는 게 어때?”라고 묻자, 신앙을 잘 모르는 그가 “교회에 가면 재밌어요”라고 답했습니다. 다니는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잘 돌봐주시고 찬송도 즐겁다고 말하는 것을 들으니, 마음속에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태수야, 그 교회에서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 래야 네가 산다.”

이 말을 하자마자 눈물이 한없이 쏟아져 나오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감동이 마음속 깊이 느껴져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성장반에서 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예수’라는 단어만 나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가족들과 친척을 만날 때 이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것은 평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찬양을 들든 말씀을 들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가슴이 울컥하며 눈물이 흐르고, 내가 죄인 중의 괴수이며,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고백만 나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처남을 전도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이 새롭게 다가왔고, 매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저의 심령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제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여러 고비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 안에서 회개와 용서를 경험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열린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15년간 다니던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였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불신이 생기고, 한두 사람씩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마음의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를 떠나게 될지라도 주님만은 떠나지 않겠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상처와 상실감이 컸던 저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찾던 중 열린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열린교회의 설교를 들었고, 수요일예배에 한번 참여해서 설교를 듣고 싶다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처음 열린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새가족위원 집사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내를 강력하게 붙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과 섬기는 분들의 따뜻한 환영과 인도로 새가족반에 등록하게 되었고 5주 동안의 새가족교육은 저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열린교회에 등록한 후, 카페에 앉아 지나가는 교인들을 보며 사도행전의 베로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을 상고했다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열린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으로 인해 깊고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담임목사님의 설교 <하나님의 사람들> 시리즈와 에베소서 강해를 들으며 강가의 얕은 신앙에서 벗어나 점차 더 깊은 말씀의 강물 속으로 저를 인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매 예배를 드리는 동안 말씀으로 저를 새롭게 하시고 세미하게 만지신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장반 성경공부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에게 깊이를 더해주시고, 말씀에서 말씀을 풀어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제 삶을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고, 성장반 공부를 통해 배운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는 다시 한번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이었으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상처입은 심령을 새롭게 하고 목양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9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처럼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으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예배와 말씀 속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으며, 주변에 아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나누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김성진
-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준경 이영춘 구용희 이동훈 박희준
-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민호 김남근
- 부목사**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심재운 정대환 김하림 이규희 김동기 손하람 최영광 김진산 김태영 정호석 최은광
- 협동목사** 정창욱
- 강도사** 김민성 이두호 조일권
- 전도사** 최선미 양승희 김미영 조희숙곽해정 김현희 김다영 김진하 이찬 이순이
- 교육전도사** 광승훈 권세원 이혜선 박주광 김태훈 최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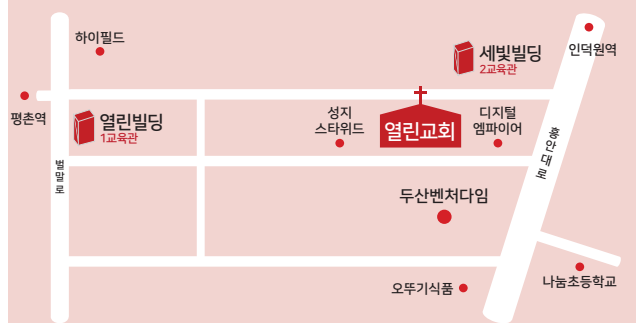
파송선교사

- A국: 2 units / B국: 1 unit
-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혜림
-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우
-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 태국: 김요한 & 이진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정오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새벽기도	오전 5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시편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백향목공동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화요일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서오시면 됩니다

